

01 간호대학

UCLA 간호 대학 MOU 체결

2019년 2월 28일 미국 Los Angeles에 있는 UCLA 간호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과 성신여자 간호대학은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를 정식으로 체결하였다. 이로써 두 대학은 향후 5년 동안

간호대학 학생들의 방학을 이용한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대학원 학생 교육연수, 교수들 간의 공동 연구 및 공동 컨퍼런스 개최 등을 양 간호대학 협의하에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사진은 UCLA 간호대학 전경입니다. 출처: Google)



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신임교수 임용

2019년 3월부터 간호학 박사과정 개설이 정식으로 승인되어 제1기 6명의 박사과정 학생이 입학하였다. 간호학 석사과정과 노인전문간호사 석사과정은 이미 2008년에 개설되어 운영 중이다. 간호학 각 분야 리더들을 배출하는 성신여대 간호학 박사과정은 질 높은 교육과정과 더불어 사립대 중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금 혜택이 있어 많은 도움이 되는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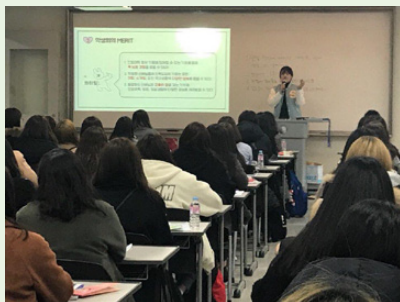
2019년 3월 1일부로 신임교수로 조무용 교수가 임용되었다. 조무용 교수는 국립의료원 간호대학과 호주 뉴캐슬대학을 졸업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이화여자대학교병원과 분당제생병원에서 근무하였으며, 이화여자대학에서 간호학 석사학위 취득 후, 한양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성인간호학 강의와 실습, 시뮬레이션 실습을 담당할 예정이며, 관심 연구분야는 성인간호와 간호교육 등이다



01 간호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성신여자대학교는 2018년 02월 20일 미아운정그린캠퍼스에서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간호대학 학생회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성신여대 간호대학의 시작(국립의료원 간호대학) 및 현황,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전공 특성 설명, 간호사면허증 취득 후 가능한 임상간호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의 진로를 소개하였다. 마지막 시간에는 간호학과 내의 다양한 동아리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호학과 삼성 직무적성(GSAT) 특강

2018년 4월 28일 운정캠퍼스 P동 503호에서 삼성 신규 간호사 입사를 대비하기 위한 GSAT 삼성직무적성 특강이 열렸다. 이날 우리대학 학생들은 55명이 참석하여, 열정적으로 강의에 임했다.



자기소개서 특강



2018년 4월 30일 오후 6시부터 이진아 강사의 자기소개서 특강이 진행되었다. 4학년 58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병원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요령에 대해 이해하고, 병원 지원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2018 간호학과 모의면접 및 취업특강

4학년 학생들의 취업 진작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8년 5월 26일 토요일 4학년 74명을 대상으로 한 모의면접 및 취업 특강이 진행되었다. 전 서울아산병원 간호팀장인 이영선 선생님과 전 제일정형외과 QPS 실장이자 현 병원인증평가 전담 위원이신 김혜정 선생님을 면접관으로 초청하여 실제 면접장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여 모의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개별 피드백을 받으며 실전 면접 스킬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01 간호대학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2018년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5월 10일 변동중학교 2학년, 7월 19일 덕성여자중학교 재학생 각각 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나이팅게일과의 첫 동행'이라는 프로그램명으로 실시되었으며 전나미 교수, 천주영 교수, 양승애 교수가 강의를 진행하였다.

간호학과와 간호학과 졸업 이후의 진로를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두개골 구조를 설명하고 학생들이 직접 조립을 하도록 지도하였으며 활력징후 측정 동영상을 보고 청진기 및 혈압계를 이용하여 직접 서로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성신여대의 자랑인 SWANS센터 견학을 통해 센터 내의 중환자실, 분만실, 일반병실, 신생아실 등을 보며 간호학 실습 교육을 체험하도록 하였다.



나이팅게일 선서식

2018년 11월 2일 오후 1시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2학년 재학생 1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병원 실습에 앞서 나이팅게일의 간호 정신을 이어받아 학생간호사로, 더 나아가 미래의 간호사로서 진지하게 간호 활동에 임할 것을 내외 귀빈과 학부모님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하였다. 이 날 양보경 총장님, 김애리 학장님,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님, 김은희 동문회장님, 김완희 국립중앙의료원 간호부장님, 김경순 국립중앙의료원 병동간호팀장님, 정현옥 국립중앙의료원 외래특수간호팀장님, 신수영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중환자실 수간호사님, 글로벌의과학과 전민영 교수님과 모든 간호대학교수님들께서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셨다. 선서생들은 재학생 투표에 의해 영나이팅게일로 선발된 차예주 학생의 등불을 이어받으며 숭고한 나이팅게일 간호정신을 되새겼다.



02 학생

성신여자대학교 간호학과 멘토링프로그램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 학생회는 간호학도들의 유대감을 증진하기 위해 제5회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최하였다. 프로그램은 2018년 3월 24일 운정캠퍼스 강의실과 대강당에서 진행되었으며 간호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도 모두 참석하여 함께 시간을 보냈다. 조를 나누어 활동하면서 선·후배 간의 교류를 촉진하였고,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의 일원으로서 친목을 도모하고 결속력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2018 간호대학생 청년리더십 아카데미

대한간호정우회에서 주최하는 '2018 간호대학생 청년리더십 아카데미'에 성신여대 대표로 공동학생회장 김민영, 배나연(16학번) 학생이 참여했다. 수원시 선거연수원에서 1박 2일간 진행된 '2018 간호대학생 청년리더십 아카데미'는 전국 112명의 간호대 학생을 선발해 진행되었다.

1일차(6월 27일)에는 선거연수원 김윤태 행정사무관의 '민주시민교육의 이해'와 소스토리 손정연 공동대표의 '긍정적 조직문화 구축' 강의를 통해 리더로서 필요한 자질을 키웠으며,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대한간호정우회 김희걸 회장의 '간호와 정치' 시간을 통해 간호계 발전 방향에 대해 배웠다. 마지막으로 간호사 출신 정치인인 더불어민주당 이미경 수원시 의원의 강연을 통

해 간호계 출신의 정치인의 필요성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2일차(6월 28일)에는 선거연수원 강대우 전임교수의 '2030 청년의 정치참여', 선거연수원 황현진 초빙교수의 '리더의 소통레시피' 강연을 통해 소통 방법에 대해 배웠으며, 서울대학교병원 조정숙 간호본부장의 '간호대학생의 진로와 비전'을 통해 서울대 병원 비전과 채용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캠프에 참여한 김민영 학생은 "앞으로 간호계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알게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했으며, 배나연 학생은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것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간호인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02 학생

글로벌 프런티어 - NY에서 NP 알아보기

10명의 간호학과 3학년 학생들(김세현, 나은혜, 서연수, 연지은, 오유진, 유선진, 조혜현, 주소연, 홍성빈, 홍지성)과 지도교수(김애리)는 2018년 6월 27일부터 7월 6일에 걸친 총 10일 동안 다양한 기관 탐방 및 집담회 참석을 통해 미국 Nurse Practitioner(NP; 전문간호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견문을 넓히고자 뉴욕을 방문하였다. 국내에서는 전문간호사(NP) 자격증이 일반 간호사들과 업무차이가 거의 없이 자격으로 그치지만, 미국에서는 전문간호사(NP)들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어서 “NY에서 NP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성신여자대학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프런티어 프로그램에 공모하여 선정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으로 진출하여 NP가 되고 싶거나 관심 있는 학생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우리나라와는 다른 미국의 전문간호사(NP) 운영방식에 대하여 관찰하고 경험해 봄과 동시에 어떻게 미국 전문간호사(NP)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건강관리체계가 다양해지고 질 높은 건강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건강관리기술의 발달과 간호 지식의 향상을 바탕으로 비용 효과적이면서도 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전문간호사(NP) 제도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운영에는 미국과는 많이 차이점이 있다. 미국에서의 전문간호사(NP) 제도는 충분한 임상경험과 간호학 석사과정 이상의 교육을 갖춘 간호사들로서 구성된 간호직의 발전과 의료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문간호사(NP)들은 클리닉, 간호요양원, 전문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 전문간호사(NP)는 처방권이 있어 즉각적인 검사 및 치료를 수행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의료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고, 전통적으로 일반의가 수행하던 일차건강관리와 예방관리업무의 약 60-80%를 전문간호사(NP)가 수행하고 있었다. 미국NP는 진료한 환자의 수와 관계없는 높은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환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 충분한 진료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의료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있었을 뿐 만 아니라 실제로 NP들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중에 특별히 한국에서 어린 후배들이 왔다고 대부분 근무 중이지만 한결음에 달려와 주신 뉴욕지부(회장 정은실, 1978 졸업) 많은 동문 선배들을 만나 볼 기회가 있었다. 그림 같은 동문 저택에 초대하여, 앞으로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씀뿐 아니라 맛있는 바비큐 파티와 선물, 학교에 전달할 장학금까지 마련해 주셔서 동문과 모교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소중한 잊지 못할 경험을 하였다.

“NY에서 NP 알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문한 기관들과 느낀 점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보겠다.

1. International Korean Nursing Conference(IKNC) 참여

미국 대표 간호 협회인 Global Korean Nursing Foundation-USA, New York Korean Nurses Association, Overseas Korean Nurses Association의 주최 하에 3일 동안 뉴욕 Laguardia Plaza Hotel에서 컨퍼런스가 진행되었다. 간호의 리더십, 교육, 연구, 임상 간호의 발전을 주제로 독일 등 세계 곳곳에서 일하는 한국인 간호사들 300여 명이 모여 각자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특히, 첫날 Whyoun Lee 교수님이 발표하신 ‘전문간호사의 최신 동향’은 전문간호사에 대해 배우러 간 성신여대 간호 학생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주제였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차세대 간호사들이 친목을 맺는 Young Generation 모임과 Long Island 대학, Long Island 병원 투어를 하였는데 특히 감염관리에 대해 매우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2. Bronx psychiatric center

성신여대 간호학과와 모태인 국립의료원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정신전문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유옥주 선배님이 일하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다. Bronx psychiatric center는 외래 병원으로 정신 전문간호사가 어떻게 정신과 환자들에게 자율적으로 정신과 약을 처방하고 상담하는지 알아보았다.

3. Cornell Medical Center

방문했을 때 오픈한 지 6개월 되었던 최신식 병원이라 수려한 시설에 대해 놀라움과 감탄의 연속이었다. 환자가 이동하는 공간과 의료진이 이동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고, 기본 검진은 간호사가 아닌 Physician Assistant(PA)가 함으로써 NP의 업무를 경감시켜주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 병원에 있는 9명의 전문간호사 중 유일한 한국인으로 일하고 있는 성신여대 졸업생 박혜숙 선배님을 인터뷰하였다.

4. New Jersey Clinic

전문간호사가 직접 의사와 같이 병원을 개업하여 환자

02 학생

를 진료하는 곳이었다. 실제로 동문 김지은 Family Nurse practitioner를 만나 어떤 절차를 밟고 병원을 개업하였는지, 어떻게 환자에게 처방을 내리고 진료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5. Jacobi Medical Center

Jacobi Medical Center는 대형병원으로 한국간호사들도



많이 일하고 있었는데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간호부장님께 듣고, 병원 투어를 하었는데 많은 수련의들이 다양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는 광경도 볼 수 있었다. 이곳에서 유명한

외상센터, 고압산소 치료센터를 탐방하고 직접 거대한 고압 산소치료기기 안을 관찰할 수 있었다.

6. Long Island University / Long Island Jewish Medical Center

유서 깊은 Long Island 대학에서 시뮬레이션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을 듣고 시뮬레이션 Central line 간호가 제공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7. North Shore Hospital

North Shore Hospital은 의료와 간호 면에서 매우 질 높은 병원에게만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해주는 Magnet 병원이다. 특히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어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는 Magnet Program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으며 전문간호사(NP) 선생님께서 근무하는 현장에서 다른 동료 간

호사들과 서로 협력하여 간호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하여 들을 수 있었다.

8. Northwell 신장실

Northwell 병원도 Magnet 병원이다. 이곳 신장실에서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와 직접 만나고 대화하며 과정을 관찰하였고 혈액투석 간호사교육을 담당하시는 조명숙 전문간호사 선생님께 혈액투석의 원리와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9. Creedmoor 정신병원

만성 정신과 질환 환자들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각 치료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실제 환자가 치료를 받는 공간을 관찰할 수 있었다. 동문 Joong Yoo 수간호사와 여러 선배님들을 뵈고 환자들의 중증도가 높은 만큼 정신과 돌발상황에서 어떠한 대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10. Hunter University

Hunter 간호대학은 뉴욕시립대학(CUNY)이지만 질 높은 간호 교육과정으로 매우 유명한 대학이다. 특별히 허락해 주신 Saladino 교수님의 Anxiety disorder 시간에 같이 참여하였고, 헌터 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케이스스터디를 하고 발표하였다. 수업 이후에 Bernstein 교수님께 미국 NP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소연 (16학번) 이번 글로벌 프런티어는 나의 고민이 많이 해결되는 탐방이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졸업 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진짜 간호사가 나에게 맞는 직업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간호학과에 진학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간호사라는 직업이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직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였다. 하지만 이번 탐방을 통해서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해외 취업이나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이번 탐방을 통해 다양한 분야, 다양한 나라, 그리고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경험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낮은 나이에 이민을 결정하고 미국에

와서 직업을 구하고 공부를 하는 분이셨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많아지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분위기가 갖춰져 있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많이 신경이 쓰이기 마련이다. 실제로 경력 없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채용해 주는 회사나 병원들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만 원하고 노력을 하면 충분히 그만

02 학생

큼 보상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우리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생각도 해 보았다. 또한, 우리가 중점을 맞추었던 NP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인터넷을 통해서 밖에 없는데, 직접 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미국을 찾아가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생생한 경험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간호사로서의 전문

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동문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선배님들을 보면서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후배들을 아끼는 마음도 느낄 수 있었고, 활발한 동문회 활동을 통해서 서로 이끌어 주고 도움을 주고받는 모습도 인상 깊었다. 글로벌 프런티어를 통

한 이번 경험은 절대로 잊지 못할 추억이며 나의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었다. 이런 기회를 준 성신여대와 국제교류팀에게 감사하며, 잘 이끌어 주신 교수님과 함께 한 동기들에게 감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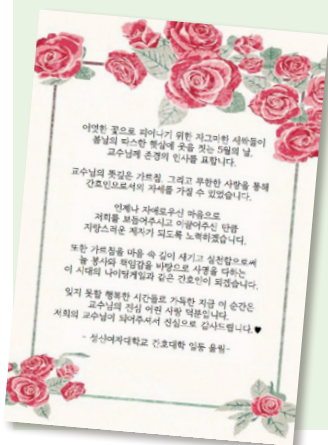
조혜현 (16학번) 1학년 때부터 미국간호사에 관심이 있어서 미국간호사를 직접 보고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 글로벌 프런티어에 지원했다. 이번 글로벌 프런티어를 통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 이상을 배워왔다. 먼저 2박 3일간 진행된 국제한인간호사컨퍼런스(IKNC)에서 20-30년 또는 그보다 더 오래 간호 영역에 활동하셨던 분들의 강의를 들었다. 한국에서는 교수님, 2-3년 높은 선배들의 말이 전부였던 나로서는 이곳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에 따라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사실 그동안 '간호'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먹고 살 길이라고만 생각하면서 공부해왔는데 컨퍼런스에서 어느 교수님께서 자신의 Nursing identity를 찾으라는 말이 너무 와닿았다. 또한,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며 앞으로 내가 간호사로서 가질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고 돌아올 수 있었다. 미국은 정년퇴직이 없기 때문에 60세가 넘어서까지 간호직에 계신 분들이 많았다. 동문 선배님들 중에서도 40세가 넘으신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 끊임없이 공부하며 실

무에 계신 선배님들이 너무 대단해 보였다. 그분들을 보며 앞으로 나의 간호 생활에 많은 영감을 느꼈다. 반면, 간호사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의료인으로서 존중받는 미국과 달리 신규 간호사가 되어 1년을 제대로 버틸 수 있을까 걱정하는 한국 간호사의 현실은 좋지 않다. 앞으로 한국이 그만큼 발전하기 위해 같이 힘쓰고 싶다. 10일 동안 동기들과 잘 맞아서 너무 좋았고 이끌어주신 교수님께, 글로벌 프런티어라는 기회를 준 성신여자대학교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스승의 날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학생회가 전체 학생을 대신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간호대학 교수님 한 분 한 분께 러빙페이퍼와 감사카드를 드리고 직접 제작한 스승의 날 감사 영상을 보내드렸다.



2018 국제진료 간호사 전문과정 1기 수료

2018년 7월 3일부터 7월 17일까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교육본부에서 실시한 <2018 국제진료 간호사 전문과정 1기>과정이 진행되었다. 성신여자대학교에서는 '안여명, 이소정, 최연수, 문현지' 등 4명의 학생이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수료하였다.



02 학생

성신여대 간호대 연합동아리 ‘모나미’ 영동서 무료한방진료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 재학생 및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충북 향우회 연합 동아리 ‘모나미’는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4일간 영동농협 본점 3층 회의실에서 조합원(농업인)을 대상으로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하였다. 진료기간 동안

성신여자대학교 모나미 학생들은 11명이 참여하였고, 대상자 접수부터 안내, 질병 관련 예방 교육, 예진, 혈압, 발침 및 한약 제조까지 여러 역할을 맡았고, 하루 평균 100여 명의 대상자분들에게 무료로 진료 및 간호를 수행하였다.



학술제

2018년 11월 30일 운정캠퍼스 중강당에서 성신여자대학교 제9회 간호대학 학술제가 개최되었다. 올해 학술제에서는 1부 ‘성신, 의료인으로 품다’와 2부 ‘제2회 간호인의 밤’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아산병원 유전자 연구소 윤혜원 팀장님의 강연을 시작으로 5팀의 학생 학술 발표가 있었다. 이번 특강으로 간호사의 업무 확장과 유전병에 대한 학생들의 식견을 더욱 넓힐 수 있었으며, 학술 및 연구발표, 글로벌 프린티어 보고 등을 비롯한 재학생들의 발표에서 간호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엿볼 수 있었다. 2부 ‘간호인의 밤’에서는 간호학과 교수님들이 기부한 물품들로 알뜰장터가 열렸으며, 간호대학 09학번 전 여름 졸업생이 참석하여 ‘간호사가 말하는 간호의 길’이란 주제로 열정 넘치는 강연을 하였다. 이후 본 프로그램인 ‘성신 토크토크’와 경품 추첨 등으로 이어지며 즐겁고 풍성한 학술제가 되었다.



02 학생

2018 PRN 취업 설명회

2018년 12월 21일 운정캠퍼스 중강당에서 PRN 취업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이 설명회는 매년 간호학과 재학생 4학년 중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이 다음 해 취업을 준비할 후배들에게 취업과 관련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간호학과 재학생 약 110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 학생에게는 PRN 자료집이 제공되었다. 각 병원별로 합격한 4학년 학생들은 병원별 특성, 인턴십 경험, 지원 서류, 면접스터디, 면접분위기, 태도와 복장, 합격전략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3학년 학생들은 관심이 있는 병원에 대한 정보를 얻고, 궁금했던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의함으로써 2019년 병원 지원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였으며, 관심있는 병원에 대한 지원에 더욱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학생회 학생 복지물품 보틀, 후드집업 판매

간호대학 33대 학생회에서는 학생 복지를 위해 복지물품 보틀과 후드집업을 판매하였다. 보틀은 우리 대학을 대표하는 수정구를 넣어 디자인하였으며, 후드집업의 경우 학생 투표를 통해 흰색과 검은색 두 가지 색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하였다. 후드집업에는 심전도와 수정구를 합쳐 간호학과를 상징하는 대표 마크를 제작하였는데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으며, 추후에도 계속해서 학생 복지를 위해 물품을 제작할 예정이다.



간호사 국가고시 지원

제59회 간호사 국가고시가 2019년 1월 25일(금) 무학중학교에서 있었다. 학생회 임원진 및 김영주 학과장, 양승애 교수가 함께 4학년 국가고시 응시자를 응원하였다. 국가시험 도중 혈당이 떨어질 때마다 꺼내 먹을 수 있는 간식 봉지와 컴퓨터 사인펜, 그리고 수정테이프를 고사장에 들어가는 4학년에게 모든 성신간호인들의 사랑을 듬뿍 담아 전달하였다. 또한, 점심시간에는 배를 든든하게 채워줄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하여 마지막까지 국가고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02 학생

학년별 장학금 수혜율

학년도	학기	학년	장학금 수혜인원	재학생수	장학금 수혜율	학기	학년	장학금 수혜인원	재학생수	장학금 수혜율
2018	1학기	1학년	98	99	99.0%	2학기	1학년	90	95	94.7%
		2학년	73	99	73.7%		2학년	89	98	90.8%
		3학년	83	118	70.3%		3학년	111	114	97.4%
		4학년	100	105	95.2%		4학년	88	105	83.8%
	1학기 합계		354	421	84.1%	2학기 합계		378	412	91.7%
	2017학년도 전체		732	833	87.9%					

* 재학생 수는 2018학년도 4월 1일, 10월 1일 교육부 통계 기준

* '장학금 수혜율 = 장학금 수혜인원 / 재학생 수'로 계산 (중복 수혜 포함)

성신여자대학교는 여자대학으로 장학금 수혜율이 전국 최고이다. 특히 성신여대 중 간호학과 학생들의 수혜율이 2018학년도에 87.9%를 차지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금은 성적장학금, 운정장학금, 수정장학금, 성신장학금, 멘토링장학금, 동문회 장학금 등이 있다.

03 대학원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제3회 개강식 및 콜로키움



간호대학 대학원은 2018년 3월 29일 운정그린캠퍼스 메디케어 실습실에서 개강식을 가졌는데 성신여자대학교 간호학과에서 대학원생들의 연구와 학술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간호대학원에서는 학기당 2-3회의

대학원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있으며 2018년 4월 26일 경희대학교 간호학과 강영미 교수를 초빙하여 “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논문작성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였는데, 대학원생들이 논문 작성을 위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대학원 졸업생

2018년 간호대학에서는 노인전문간호사과정 4명이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이중 오지혜 학생은 노인전문간호사 교육과정 협의회장상을 수상 받았다.

학위 수여일	전공 (간호학 석사)	성명	논문주제
2019년 2월	노인 전문 간호사 과정	오지혜	교대근무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우울, 정서지능, 자아존중감, 셀프리더십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정지현	종합병원 간호사의 임종기 치료, 연명치료,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과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교육요구도와와의 관계
		조애영	일 종합병원 간호사의 성격유형,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의 관계
		최애리	일 종합병원 간호사와 간호업무부조원의 잠복결핵감염 관련 요인

04 SWANS 센터

주한 미육군 의무부대 브라이언 올굿 커뮤니티 병원 (65th Medical Brigade Brian Allgood Army Community Hospital)

시뮬레이션 트레이닝

주한 미군 의무부대 브라이언 올굿 커뮤니티 병원 (65th Medical Brigade Brian Allgood Army Community Hospital)의 의료진들이 2018년 7월 30일 성신여자대학교 SWANS Center에서 하계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하였다.

원인불명 고열 환자, 흉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 분만 후 출혈 환자,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 환자에 대한

시나리오 등을 통해 다양한 시뮬레이션 상황을 경험하였다. 이번 시뮬레이션 훈련을 마친 의료진은 시뮬레이션 녹화영상을 시청하고 디브리핑 과정을 통해 시나리오 상황 및 환자 사정에 근거한 적절한 의료 기술 제공 및 팀워크 능력 향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미군 병원 관계자 방문

2018년 8월 13일 주한 미군 의무부대 브라이언 올굿 커뮤니티 병원(65th Medical Brigade Brian Allgood Army Community Hospital)의 Cooper 여단장과 Ruiz 간호부장을 비롯한 10명의 의무부대 및 전투지원병원 관계자들이 우리 간호대학을 방문하였다. 이 날 방문에는 우리 대학의 간호학과 교수 9명이 참석하였고, 우리 대학 SWANS

Center의 다양한 실습 모형 및 모의병동들을 비롯한 우수한 시뮬레이션 기반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이날 미군 병원 관계자들은 우리 대학 운정캠퍼스에 위치한 복식박물관도 탐방하여, 전통 한국 문화를 견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04 SWANS 센터

동계 시뮬레이션 교육 워크숍 “하루 만에 시뮬레이션 교육 따라잡기”

SWANS center에서는 2019년 1월 16일 시뮬레이션 기반의 간호교육(simulation-based nursing education)을 준비하는 교수자들을 위한 <하루 만에 시뮬레이션 교육 따라잡기>을 개최하여, 전국에서 온 32명의 교수가 참석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김영주 교수(성신여자대학교), 김

동희 교수(성신여자대학교) 김은정 교수(한림대학교), 김정숙 교수(경인여자대학교), 김소명 교수(대구과학대학교)가 시뮬레이션 교육의 이해, 시뮬레이션 모듈 개발, 디브리핑 과정에 대해 교육하였고, 이를 통해 교수자들의 시뮬레이션 교육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05 교수

연구비 수주

• 교내

교수명	연구주제
김애리	- 노인요양병원 간호인력의 인간 중심케어에 미치는 영향요인 - 감염예방에 대한 노인들의 지식 및 실천정도
정명실	- 디지털러닝 환경에서 초등학생의 VDT증후군 자각증상 관련 연구 - 우울증선별도구(PHQ-9)를 활용한 자살시도여부
김동희	간호교육에서 학습전이에 대한 연구
김영주	자기주도적 기본간호실습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실기수행능력

• 교외

교수명	연구주제	연구비수주기관
조정민	노인의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Road Map Time -Traveling Intervention(RMTI) 개발 및 평가	한국연구재단
김동희	- 액션러닝기반의간호임상실습블렌디드모델개발및평가 - 신생아 및 소아 중환자실에서 간호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적용 및 평가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김영주	표준화된 시뮬레이션교육패키지 개발 및 보급	한국연구재단
임경춘	- 노인의 인지기능증진을 위한 맞춤형 간호서비스 적용 및 효과검증을 통한 간호서비스 표준화 모형 개발 - 지역공동체중심통합형독거노인건강관리및일상생활지원서비스모델(공동연구자)	한국연구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천주영	간호대학생을 위한 통합적 연명의료 및 사전의료의향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한국연구재단

05 교수

교수동정

김애리	• 2018. 7. 18.~2018. 7. 27. LAC+USC(Los Angeles County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Medical Center에서 Trauma Center 연수
고정미	• 2018년 2학기 연구년
김영주	• 2019-2020년도 한국의료시물레이션학회 학술이사로 선출됨
임경춘	• 노인전문간호사 교육과정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됨 • 한국간호교육평가원 노인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됨 • 한국노인간호학회 학술이사로 선출됨 • 대한근관절건강학회 학술이사 및 총무이사로 선출됨

06 동문회

총동문회 소식

2018 4월 28일 토요일에 동문 춘계 야유회를 실시했다. 단양에 있는 구인사를 방문하였고 총 46명 참석하여 동문 간 친목 교류를 하였다. 또한, 자문위원회 춘계 야유회를 2018년 10월 27일에 개최하여 화담숲 및 진천 룡다리를 관광하였고 29명이 참석하였다.

이성남 동문(24기, 1985년 졸업)이 서울시 보건공무원 사무관으로 승진하였다. 조자숙(21기, 1982년 졸업), 김정기(23기, 1984년 졸업), 변의형(24기, 1985년 졸업) 3명이 건강보험 심사평

가원 실장으로 승진하였다.

2018년 11월 22일 동문회 총회가 약 80여 명의 동문이 모인 가운데 세종호텔에서 있었다. 총회에서 성신여자대학교 정명실 교수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동문회는 국내에 12개의 지부, 국외에 2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다. 올해에는 16기 장학금 1명, 24기 이해경 장학금 1명, 뉴욕지부 장학금 6명, 본 동창회 장학금 6명이 동문장학금의 혜택을 받았다.



| 춘계야유회



| 2019년 동문 신·구 임원인수인계식



| 추계 자문위원회

06 동문회

뉴욕 뉴저지 지부 동문회 소식

2018년 7월 4일 30여 명이 모인 동문회를 개최하여 뉴욕을 방문한 김애리 학장과 간호대 3학년 학생 10명을 환영하는 행사를 하였다.

또한 2019년 2월에 70여 명의 동문들과 가족들이 모여 동문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날 제1회 입학생들의 나이팅게일 선서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동문들의 활동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유튜브에 게시하였다.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IW6rm-IbPxY>)



IbPxY)

동영상 내용은 '1부; 그리움, 그리움의 NMC 기숙사와 스칸디나비안 정원 / 2부; 설레임, 미국, 경제인의 삶,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하다 / 3부; 함께함, 모두 내려놓고 함께하는 유럽여행, 유럽 한 모퉁이에서 옛이야기하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초대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교수이셨던 방숙자 은사님을 모셔 공로패를 전달하는 뜻깊은 모임을 하였다.



07 졸업생 소식

졸업생 간담회

김동희 교수는 강남세브란스에 재직 중인 간호학과 졸업생 11명을 만나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졸업생들의 경험과 어려운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임경춘 교수도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 국립중앙의료원에 재직 중인 졸업생들을 만나 최신 간호정보를 교환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국립중앙의료원 감염관리실에 재직 중인 간호대학 졸업생인 09학번 김보미 졸업생이 제1회 공공의료 페스티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07 졸업생 소식

동문으로부터 온 편지



성신여대 간호학과 교수님들, 후배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 1회 졸업생 김진영입니다. 성신여대 간호학과가

올해 11주년이 되었다는 소식에 참 축하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간호학과에서의 학부 생활은 제가 사회로 나가기 전에 필요한 인성과 교양, 지식, 의지력 등 인생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졸업 이후 외국 타지에서 생활할 때에 간호학과에서 배운 모든 지식과 체험들이 직간접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건대 제가 너무 형편이 어려워 학부도 졸업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여러 교수님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과 지원으로 무사히 학과를 졸업할 수 있었고, 이후에 간호사로서 병원 생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간호학과 교수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오하이오 주에 있는 오하이오 대학에서 Voice performance/pedagogy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4년에 미국 뉴욕 주의 RN 간호사 자격증도 취

득하였지만, 늦은 나이에 우연히 성악이라는 새로운 학문에 눈을 뜨게 되었고 음악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의 열정은 여기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성신여대 간호학과 시절 때 병원 실습하며 배운 체계적인 삶과 강인한 정신력은 미국 유학생활에서의 많은 어려움들을 딛고 학업의 진보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의사소통도 어려서 음악의 기초도 없어, 음대 교수님들께 가까스로 사정하여 시카고의 North Park University 음대 학부에 입학했습니다. 천사 같은 많은 분들의 도움과 인격적이신 음악선생님들의 지도하에 3년 만에 음대 학부를 졸업하였습니다. 음악적인 실력은 아직도 많이 미비하였지만, 졸업식 때 음대 학장님께서 "우리 음대를 열심히 연습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주어서 고맙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작년 봄학기부터는 오하이오 주에 있는 Ohio University에서 음악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일 년간 모든 과목 A, 미국 학점 기준인 4.0 만점을 받았고 졸업할 때까지 90 퍼센트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영예를 가졌습니다. 탁월한 교수님들의 지도 아래 성악 실력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내년 석사 졸업 이후에는 Vocal performance/pedagogy 박사 과정을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더 나아가 저의 강점인 과학 영역과 간호학 지식을 살려서, Vocology certificate와 Speech-Language Pathologist certificate를 공부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 시절 때는 나이팅게일과 같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그와는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제 아름다운 목소리로 희망, 기쁨,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며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예술인이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또한, 실력 있는 음악 교육자가 되어 학생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그들의 꿈을 키워주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 도전들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신여대 간호학과 후배님들, 새로운 2019년 한 해에도 늘 행복한 일 가득하시고 주어진 학업에서 많은 진보를 이루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있는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는 성신간호인이 되길 바랍니다. 성신여대 간호학과 화이팅!

(간호대학 1회 졸업생 김진영)

양승에 교수님께, 저는 작년 11월에 시카고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벌써 1년이 훨씬 넘었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은 시카고 남쪽 서버브에 있는 Blue Island라는 동네에 MetrouSouth Medical Center예요. 저는 Women's Care에서 일하고 있어요. Women's Care 안에는 Labor & Delivery, Mother Baby Unit(postpartum), Special Care Nursery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대개 2개 병동을 크로스 트레이닝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만실에서도 일하고 산후병동에서도 일해요. 분만실 안에 아예 수술실까지 같이 있어서 제왕절개하는 환자도 제가 수술실로 데리고 가서 써큐레이팅하고 데리고 나와서 회복까지 같이 해요.

한국에서 처음에 CCU에서 일하다가 응급이 너무 많고 CPR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분만실로 옮겼거든요. 미즈메디 분만실에서 일할 때는 태아 심박수가 떨어져서 응급 제왕절개 가는 것 외에는 별로 응급상황이 없었는데, 미국에오니 분만실에서도 코드블루가 뜨고... 분만 후에 embolism이나 eclampsia로 중환자실 가는 환자도 종종 봅니다. Acute setting에서 일하면 응급 상황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이제는 그러려니 하긴 하지만, 나중에 에이전시 계약기간이 끝나면 대학원 가서 Midwifery 공부해서 외래에서만 환자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종종 합니다. 미국에 와서 일하면서 처음에 가장 충격적

이었던 것은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였어요. 여기서는 모든 입원 산모에게 소변으로 drug screening을 하는데요. 마약이나 양성 나오는 일은 비밀비재하고, 가끔 헤로인 양성 나오는 환자들도 종종 있어요. 그럼 아기한테도 소변 검사를 하는데, 만약 아기에게서도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오면 정부기관에 보고를 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산모를 인터뷰하려 와요. 지금까지 산모가 진짜 아기를 집에 데



07 졸업생 소식

려가지 못한 경우를 정말로 한번 보기는 했어요. 신생아도 성인처럼 마약 금단증상을 그대로 겪는데 Morphine 주면서 tapering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픈 경우가 너무 많고, 환자들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기 아빠들도 마리화나 냄새 풀풀 풍기면서 신생아실에 아기 보러 오는 사람도 많고요. 저번에 한 번은 산모가 진통이 있어서 왔는데 산모랑 아기 아빠랑 모두 마약에 취해서 눈도 반 풀려 있고 몸도 못 가누고 말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작년에 독립하고 얼마 안됐을 때는 정말 황당한 일도 있었어요. 여기는 주로 흑인한 자들이 많아서 preeclampsia가 정~~~~~말 많거든요. 혈압이 180/110 이런 아슬아슬한 케이스를 정말 매일 보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산후병동에서 밤에 일하고 있었는데, 분만실에서 옮겨온 환자 혈압이 또 severe range로 치솟은 거예요. 병원에서는 혈압이 160/110을 넘어가면 프로토콜대로 labetalol과 hydralazine로 IV push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의사한테 notify했더니 PO 약을 주고 더 이상 혈압을 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다시 혈압을 잴고 환자 혈압은 여전히 180대였어요. 다시 전화를 했더니 알겠어! 하고 제 말도 자르고 뚝 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지 널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차지널스가 그 의사한테 전화해서 지금 가서 환자 사정하고 병원 프로토콜대로 치료하시라 말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의사는 환자를 보러 올 생각이 없어서 차지널스가 다른 의사한테 전화를 해서 다른 오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자기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생겼으니까 저한테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나는 오더를 똑바로 썼는데 저 간호사가 내 영어를 못 알아들은 거라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를 떠서 울기만 했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차지 널스가 널싱 디렉터와, 그 의사가 속한 메디컬 그룹 디렉터와 인사과에 보고해서 한동안 조사가 이뤄진 후에 그 의사는 사임했어요. 지금은 그때 그랬지 하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됐지만 그 당시엔 참 힘들었어요.

일이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건 역시 좋은 사람들과 일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간호사 문화 특유의 선임 간호사가 양

이라는 인식 때문에 선배들한테 찍힐까 봐(?), 잘 보이려고 항상 눈치보고 억울해도 하고 싶은 말 참고 삼키고 그런게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듀티 멤버를 고르게 구성하느라 그냥 누가 연차가 높은 간호사인지 누가 경험이 부족한 간호사인지 정도만 알지 몇 년차 몇 년차 따지는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들한테도 선배 간호사한테도 디렉터한테도 할말은 그냥 눈치 안보고 다~~ 하더라고요. 그치만 저는 못해요. 아직.. 습관은 잘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도 참는게 미덕인 것 같고, 너무나 쉽게 미안하다 얘기하고 그런답니다. 저는 여기 와서 무려 4달 동안이나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첫 달은 산후병동에서 나머지 세 달은 분만실에서요. 제 프리셉터 두 명은 모두 40년차 간호사들이었어요. 트레이닝 기간 내내 화 한번 안내고 참 감사한 분들이예요. 지금까지 힘들었던 것만 주저리 주저리 적었네요.. 그래도 좋은 건 한국에서 친절하던 경험대로 미국에서 하니까 환자들이 인상 깊어해서 스태프 미팅 때마다 환자들한테서 수진이 친절하다는 코멘트 많았다고 칭찬받아요~ 미국 간호사들도 친절하긴 하지만.. 보호자들처럼 얘기하다가 말 안통하고 조금만 큰소리 나고 진료에 방해되면 씨큐리티 불러서 내쫓아버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이제 그냥 그렇게 해버려야겠다고 생각 중이에요.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간호사는 감정노동이 참 심한 직업인 것 같아요. 이 동네 환자들은 이상하게 그 특유의 굉장히 눈빛이 공격적이고, 말투가 사납고 모든 걸 의심하고 경계하고 어린이들이 같이 떼쓰는 그럼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런 환자를 12시간 동안 대하고 나면 아직도 집에 갈 때 울면서 가는 날이 있어요. 한국 경력부터 치면 벌써 만 5년차가 넘었는데 아직도 이르고 있어요..ㅋㅋ

처음엔 나이트로 시작했었는데 건강이 너무 극심하게 나빠지고, 살도 너무 많이 찌고, 잠만 자서 최근에 데일로 옮겨졌어요. 나이트가 팀웍이 훨씬 좋았어서 사람들이 그림긴 하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데이에 잘 적응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병원 외의 생활도 만족스러운 편이에요. 시카고 지역은 한인들이 거의 도시 다운타운 안에 살거나 북쪽 서브버브에 살아서 제가 있는 곳은 한국인이 정말 한 명도 없어요. 다

행히 집 앞에 미국 교회에 우연히 갔는데 너무 좋은 사람들 만나서 화요일 저녁마다 소그룹 모임도 가고, 교회 카페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나름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요. 12시간 근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헬스장 가서 PT 받으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구요! 처음에 만난 트레이너가 저랑 같이 일한 간호사 아들이어서 특별한 인연으로 더 재미 붙이고 신나게 운동했던 것 같아요. 날씨 따뜻할 때는 발코니 나가서 차마시면서 책도 보구요, 여름엔 아파트 잔디밭에 나가서 반딧불이 구경도 하고 그래요. 연애도 짧게 두 번하긴 했는데 지금은 싱글라이프를 즐기는 중이에요. 교수님 성인 간호학 듣던게 옛것처럼 같은데 제가 벌써 서른이네요! 일년 동안은 적응만 열심히 했고, 이제는 삶이 약간 루즈해진 것 같아서 다시 공부에 시동걸어보려는 중이에요. OB 관련 자격증도 따고, 널싱 외에 다른 분야로도 학교에 다시 가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요즘 미국 이민 문화가 간호사들에게 활짝 열려서 동문들이 미국으로 많이 건너오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캘리포니아 앨버인 살고있는 09학번 아람이도 만나고 왔고, 저번 달에는 플로리다 올랜도에 가서 10편입생 미셸언니도 만나고 왔고, 다음주에는 뉴욕 가서 NMC 최요섭 선배랑 시간이 되면 07학번 윤지윤 선배도 만나고 오려고 해요.

임경춘 교수님, 김애리 교수님, 김영주 교수님, 김동희 교수님, 정명실 교수님, 고정미 교수님, 조정민 교수님, 전나미 교수님 모두 잘 계신가요? 제가 학부때 매우 그리워한다고 안부 꼭 전해주세요.)

교수님, 졸업 후에도 미국 올 수 있게 서류 작업 이것저것 신경써주신 것 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럼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세요, 교수님.)

(2014년 졸업생 최수진)

